

문화화의 시대와 문화도시 정책

홍성태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 글은 '문화화의 시대'라는 역사적 발전의 맥락에서 문화도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화에 부응하는 국가 정책으로서 문화도시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임. 문화도시 정책은 단순히 문화정책의 일환을 넘어서 문화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거시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국가 발전 정책으로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화의 시대

우리는 '문화화(culturification)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문화화는 문화가 사회의 한 요소인 것을 넘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시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사회가 멋지고 즐거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가 창의적으로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특성으로 문화화는 사회가 더욱더 인간화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그것은 인간 중심의 강화가 아니라 생태적 각성을 기초로 더욱 더 세련되고 격조 있게 되는 것이다.

문화로 번역되는 culture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키케로(Marcus Cicero, bc. 106-43)가 말한 cultura animi(영혼의 배양)로 비롯되었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1781년에 출판한 『순수이성비판』에서 키케로의 cultura를 되살렸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cultura는 교양과 문화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cultura는 19세기를 지나며 영혼의 배양을 넘어서 그 세련된 표현을 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술이 cultura의 정수로 여겨지게 되었다. cultura의 번역어로 교양을 제치고 문화가 널리 확산된 것은 이 때문이다. 문화는 교양을 바탕으로 하되 교양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표현을 함의한다.

현대 사회는 공업화를 물질적 기초로 한다. 공업화는 기계화를 거쳐 정보화로 이어지며 사회의 풍요화와 복지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정보화는 사실 문화화와 직결된다. 정보기술은 본질적으로 문화기술이다. 정보기술은 전자기술을 이용해서 문화의 핵심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술인 것이다. 컴퓨터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로 작동해서 콘텐츠웨어(CW)를 만드는 기계이다. 정보화는 매스컴을 지나서 컴퓨터로 나아갔고, 그것은 거대한 문화화의 전개 과정이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가 고도화되는 것을 넘어서 문화화가 전면화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정보-문화혁명이다.

문화화는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풍요화, 복지화에 이어지는 현대 사회의 역사적 발전으로 정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문화화는 물질적 만족을 넘어서 정신적 만족을 이루는 것이지만, 국가의 차원에서 문화화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문화화의 역사적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 문화정책의 강화는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을 위한 핵심이다.

■ 문화도시의 전개

문화도시 정책은 문화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방식

이다. 문화화는 산업과 생활의 양 면에서 구현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문화 산업의 성장으로 시작되어 문화도시 정책으로 나아갔다. 문화도시 정책은 생활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의 산업화와 산업의 문화화를 더욱 촉진한다. 문화도시 정책은 단순히 문화정책의 일환을 넘어서 문화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거시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국가 발전 정책으로서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키케로와 칸트의 문화 개념에 잡혀 있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문화의 산업화를 극히 경멸하고 비난했지만 사실 문화산업은 문화화의 주요 양상이었다. 아도르노의 친구였던 벤야민이 말한 문화의 민주화는 단지 복제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다. 문화산업은 정보기술을 동력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뒤 계속 급성장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유네스코는 문화산업을 문화 발전의 중요한 주제로 인정하게 됐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모든 선진국의 핵심 산업이며, 문화화의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1980년대 초에 유럽에서 문화산업의 성장에 이어서 문화도시 정책이 시행됐다. 1983년에 그리스의 문화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르쿠리가 제안한 ‘유럽 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가 그 시작이었다. 문화도시 정책은 문화산업으로 촉진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면서 퇴락하는 유럽 도시들의 문화적 재생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는 도시 사회로서 오늘날 세계의 도시화율은 곧 60%를 넘을 것이다. 문화도시 정책은 인류가 만든 최대의 문화적 산물인 도시를 멋지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서 인류의 생활을 멋지고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화도시는 문화화의 핵심이다.

한국에서 문화도시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에 처음 제기되었으나 1996년 문화부의 ‘문화도시 문화복지’로 본격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화도시 정책이 법제화되어 2019년에 1차 문화도시가 지정됐고 2013년에 5차 문화도시가 지정될 것이다.

문화도시 정책은 지역발전 정책에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의 본격적 전개에 해당된다. 문화화의 면에서 지역 소멸이 우려될 정도에 이른 지역 쇠퇴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문화도시 정책을 핵으로 하는 문화적 전환은 필수적이다. 혁신도시의 보완 사항에 관한 조사에서도 문화는 교육, 의료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되었다.

■ 문화도시의 과제

오늘날 문화는 국가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며, 정보화의 발전과 함께 문화화의 추세는 더욱 더 강화된다. 문화도시 정책은 산업과 생활, 그리고 지역발전의 면에서 대단히 유효하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문화도시 정책을 더욱 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도시 지정을 2023년 5차로 끝내는 게 아니라 2028년 10차로 연장해야 한다. 문화도시 정책은 국가와 지역의 문화화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계속 연장돼야 옳다. 문화화의 추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문화도시 정책을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둘째, 도시 개발/재생 정책과 적극 연계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는 도시 자체가 문화적인 곳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가 정기용은 문화도시를 ‘기본이 바로 선 도시’라고 정의했다. 문화도시는 각종 난개발이 사라지고 문화적 향취가 있는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도시를 도시 개발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생활과 문화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인력 양성과 시민 문화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팔길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능력과 성과가 검증된 전문가들이 공적 지원을 받되 독립적으로 인력 양성과 시민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국내의 문화도시 연대 활동을 실질화하는 동시

에 남북한 문화도시 연대, 동북아 문화도시 연대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문화도시 정책을 모범으로 남북한과 동북아의 교류가 더욱 더 강화돼야 한다. 문화도시 정책이 남북한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추구될 수 있다.

다섯째, 문화도시 정책은 궁극적으로 문화사회 정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도시와 비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는 궁극적인 가치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문화사회는 복지사회의 발전으로서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다. 1980년대 말에 앙드레 고르츠가 제기한 문화사회의 전망은 문화도시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여기서 자연스레 김구(金九, 1876~1949) 선생의 말씀을 떠올린다.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문화 국가’의 전망을 제시했다. 문화는 어떤 수단이나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우리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문화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김구 선생은 이미 오래 전에 명확히 가르쳐주셨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림 1. 문화도시 지정 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2.03.)

참고자료

김구(1947), ‘나의 소원’. 『백범일지』.

문화체육관광부(2022.03.), “‘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연대공간환경위원회(2002),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울: 시지락.

Gorz, André(1988), Critique of Economic Reason, Verso.

Schwab, Klaus(2016),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ESCO(1982), Cultural Industries: A Challenge for the Future of Culture.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2022). “문화화의 시대와 문화도시 정책”. 문화에
솔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01호.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홍성태 ecohst@gmail.com
ACKIS브리핑 발행일 2022.12.13.

#문화화 #문화도시 #문화사회 #문화산업 #정보화